

# 양배추·김값 급등에 신규 할당관세 적용...대파·당근 할인지원

### 최상목 부총리,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 개최 알뜰주유소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 관리 내달 관세 인하분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

양배추와 김 등 최근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분이 빠르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단가 지원으로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분야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해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초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곡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총 5종)하고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고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t) 대비 79.5%(1559t)를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품목별 지원단가는 kg당 배추·양배추 750원, 대파 1500원, 포도 1000원, 당근 2000원 등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총 2종)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 중"이라며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락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원가 하락분을 신속하고 충분히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

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삼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에서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수권기자



## 전남산 가루녹차, 아일랜드 수출 본격화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차(茶) 가공식품 생산 수출전문업체인 월드티씨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전남산 가루녹차 1.8t을 아일랜드에 수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시범으로 가루녹차 200kg을 아일랜드에 첫 수출한 데 이어 품질을 인정받아 수출 본격계약 이뤄지면서 추가 수출이 성사됐다.

2022년 기준 유럽의 차 시장은 69억 달러로, 2027년에는 91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는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차 소비량이 2.12kg으로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소비량이 많은 나라로 최근에는 녹차와 허브차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 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남산 유기농 차의 소비

가 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전남 차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와 제다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차 제다장비를 지원받는 차 가공 지원단은 지난해 유기농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한·유럽연합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에 따라 유기로 표시해 수출할 수 있게 됐고, 올해 3.2t의 전남산 가루녹차를 독일 등 유럽에 수출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박홍재 원장은 "전남 차가 아일랜드에서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 시장 가격 안정...aT, 사전수매 '시설 봄배추' 본격 출하

### 일 평균 50t 수준 도매시장 출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배추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정식기에 사전 수매 계약한 시설 하우스 재배 봄배추를 본격 출하한다.

24일 aT에 따르면 이번 봄배추 출하는 겨울 배추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그간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비축 물량을 지속해서 방출해 왔다.

여기에 올봄 배추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자 모종 이식 시기에 총량 예산과 전남 나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전 수매계약을 통해 1000t을 확보했다.

정부는 확보한 시설재배 봄배추를 노지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5월까지 출하 공백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시설 봄배추는 2월 하순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해 생육이 다소 지연됐으나 4월 중순 기상 여건 호전으로 작황이 전반적으로 회복



복돼 23일부터 시작해 27일 이후 본격 출하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 안정과 김치 원료 부족 해소를 위해 일 평균 50t 수준으로 5월 중순까지 도매 시장을 통해 출하한다.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는 "공사는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사전 수매계약을 통한 비축 물량을 조기에 확대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기자

## 2월 출생아 수 2만명 밀돌아 16개월 연속 ↓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3% 줄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월 기준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면서 1만명 넘게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줄었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겨울에는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연속 2만명을 밀돌아 올해 1월 2만명대를 회복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만명대로 떨어졌다. 전년 같은 달 대비 2015년 11월(3.4%) 이후 계속 감소하다 지난 2022년 9월 13명(0.1%) 소폭 늘어난 후 다시 16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8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줄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인천 등 5개 시도 증가,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전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사망자수 증가폭은 2월 기준 역대 최대다. 증가율 지난 2022년 9월(13.9%) 이래 18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구는 1만1047명 자연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줄었다.

2월 자연증가(출생아수-사망자수)는 1만 614명 감소했다. 1~2월 누적 건수는 2만1662명 줄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2022년까지 코로나19 효과로 사망자가 급증했던 효과가 사라지고 작년과 올해 베이스가 같은 가운데 고령화 영향이 더욱 커지면서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2월이 지난해보다 하루가 더 많았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전년 대비 896건(-5.0%) 감소했다. 지난 1월 2021년 1월부터 2만건을 밀돌던 혼인 건수가 3년여만에 2만건을 회복했으나 2개월 만에 고꾸라졌다. 2월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2건으로 전년보다 0.3건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전북 등 3개 시도는 증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는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전년보다 128건(1.8%) 증가했다.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임영일 과장은 "혼인·이혼 건수는 올해 2월이 지난해 2월 대비 하루 더 많은 영향으로 1월에 급증하고 2월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2월을 합산하면 조혼인율은 3.3, 조이혼율은 5.7로 평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광양경제청, 금호폴리켄과 358억 투자협약 체결

### 광양 황금산단에 스마트 물류창고 건립, 신규일자리 60명 창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삼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최근 금호폴리켄과 35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광양 황금산단단지내 기능성 고무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물류창고를 건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완공 후 약 60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금호폴리켄은 국내최초 EPDM(기능성 고무제품)제조사로서 1987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현재 연간 22만톤의 EPDM을 생산하며 아시아 1위, 세계3위의 생산량을 자랑한다.

이번 투자를 통해 판매 제품의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금호폴리켄은 충분한 출하공간 확보와 선진화된 물류시스템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음식점 무인주문기 코로나 전보다 5배 증가...매출 ↑ ·정규직 ↓



지난해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도입률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주문기 사용이 늘면서 외식업체 매출액은 9% 상승했지만 종업원 중 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무인주문기 활용의 외식업체 매출 및 고용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무인주문기 도입률은 7.8%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8년에는 0.9%에 불과했지만

### 무인주문기 활용 외식업체 매출 및 고용영향 분석

2019년 1.5%로 늘어난 후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3.1%로 1년 만에 두 배 뛰었다. 2021년 4.5%, 2022년에는 6.1%로 지속 상승했다.

지난해 업종별 무인주문기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23.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0.2%), 기관 구내식당(14.7%)이 높은 무인주문기 사용 경향을 보였다.

반면 주점업(1.0%), 한식(4.4%), 치킨 전문점(4.8%)의 경우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인주문기 사용의 연평균 성장률(CAGR)이 가장 큰 업종은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91.6%), 한식 음식점(72.2%),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52.5%)인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형태별로는 주로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외식업체에서 무인주문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인주문기 사

용 비중은 프랜차이즈 업체 17.0%, 비프랜차이즈 업체 4.7%로 조사됐다.

또한 매출액 규모가 큰 외식업체일수록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액 규모별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은 5억원 이상 업체(11.6%), 1억~5억원 미만 업체(8.8%), 5000만원~1억원 업체(5.1%), 5000만원 미만(3.3%) 순으로 높았다.

아울러 매출액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외식업체에서도 무인주문기 사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외식업체에서도 무인주문기의 사용이 점점 더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조사 데이터를 통한 분석한 결과 무인주문기의 활용은 외식업체의 매출액을 약 8.9%,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0.114명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규직 근로자 수는 0.054명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희면기자